

수화를 활용한 무용 창작 프로그램(DCD)이 성인청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강충만** · 김경신***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건청인과의 소통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청각장애인을 초청해 작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이 함께 신체만을 활용해 소통하는 놀이를 진행하였다.

건청인 경우 신체를 활용해 표현은 하되 전달하는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 습관적으로 말이나 의성어를 활용해 표현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반면에 청각장애인들은 오로지 손과 몸만을 활용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상대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인 그들의 손짓과 몸짓은 굉장히 섬세하였다.

이들에게 신체란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이며 움직임 즉, 청각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몸의 움직임 '수화'가 유용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수화는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독특한 언어이며, 이들의 문화 범주 중 수화예술 안에 수화 무용이 있다. 수화 무용은 무용예술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가치를 수화에 접목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하고, 무용 동작과 수화 동작을 결합한 독창적인 움직임을 창작함으로써 수화의 예술성을 부각시킨다(정진영, 2002). 그리하여 '신체'라는 도구와 '수화'라는 수단을 무용 예술과 접목해 청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하게 한다면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24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강충만) 논문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주저자,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교신저자, 공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kks@kongju.ac.kr

장애인 무용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에 처음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분야의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한유진 등, 2018, pp. 25-32).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은경, 홍양자(1994)는 무용교육이 청각장애인들의 자의식과 열등감, 비교의식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 사회·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강은주(2004)는 무용교육을 통하여 타인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에 청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고집성, 의존성 등의 특성들을 무용교육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용 예술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내면을 바라보며, 생각을 표현하고 표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건강한 자아상을 구축해 나가도록 이끄는 교육인 것이다.

김민희(2010, p. 18)는 청각장애인은 무용을 통해 신체 움직임의 주체로서 '나'에 대한 주체성과 자아상을 발견하고, 일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존재의 역할을 깨닫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아라(2014, p. 2)는 청각장애인은 시각적 정보를 주로 활용하기에 무엇보다 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어의 장애로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에 문제를 겪는 청각장애인에게 무용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신체적·정서적·심리 사회적·행동적 문제들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이라 하였다.

더불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측면으로 다양하게 연구된 무용 교육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의 균형과 평형기능 향상, 정서적응 및 정서발달의 긍정적 효과, 자기표현력 향상, 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 향상, 대인관계 향상,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에 긍정적 효과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연구들이 존재한다(강미리, 2022).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연구가 1980년대 처음 시작되어 2020년대까지 총 36편의 연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0년대 이후 청각장애인의 인구는 지속적인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반비례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에 관한 연구의수는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강미리, 박순자, 2021, p. 449). 2010년대 이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행한 연구는 총 6편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장애인 대상 1편, 대학생 대상 1편, 아동·청소년 대상 4편으로 청각장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미리(2022)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김유미, 송혜순(2017)은 특정한 장애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용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충현(2014)은 성인 청각장애인의 깊은 이해와 주제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인은 건청인과의 소통에서 수화, 구화, 필담, 몸짓 등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을 시도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사소통장애가 청각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신선미, 2010).

이렇듯 청각장애인은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무용 예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위축과 불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정신건

강 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였다(강미리, 박순자, 2021).

고성희(2021)는 현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감정표현능력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하기에 얼굴과 신체를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청각장애인의 동작을 무용 예술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이 무용 예술을 체험함으로써 내적 표상의 표현,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여기서 ‘표상’이란 지각 또는 기억에 근거하여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관념 또는 심상으로 내적표상 즉, 정신적 표상은 개인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심리적 관계를 맺는 기본 방식을 결정하는 심리 내적 구조로, 이들에 대한 행동과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이러한 내적 표상 즉, 정신적 표상을 이끌어내며 표현하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무용 예술을 통해 경험하고 이러한 활동이 청각장애인의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때 이들의 불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존능력 즉, 신체와 시각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경험과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도록 초점을 맞춰 이들이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음으로 사회성 감소와 자존감 저하 등 청각장애인들의 고충에 무용 예술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청각장애인이 무용창작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인청각장애인이 무용창작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기표현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성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현재 공주농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인 농아 중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40대 3명, 50대 1명, 60대 2명, 총 6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에 앞서, 참여 대상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연구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 동의서를 받아 동의를 수집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 개인 특성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 보다 원활한 소통과 진행을 위해 수화 통역사 1명이 프로그램 진행과 심층 면담에 함께 참여하였다. 수화통역사의 남편은 농인이며, 37년간 영락농아교회, 전주완산교회 농아부, 공주농아교회를 운영하며 농인들과 주된 소통을 진행하고, 농인 복지역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어지는 <표 1>은 연구대상자의 개인 특성 설문지를 기반으로 작성 한 주요 특징이다.

<표 1> 연구대상자

참여자	성별/나이	청력	특성	무용경험
A	남/63	보청기X 중복장애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모두 건청인이며, 수화는 전혀 못함. •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 	없음
B	남/43	보청기(左) 중복장애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모두 건청인이며, 수화는 전혀 못함. •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 	없음
C	남/52	보청기X 중복장애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모두 건청인이며 수화는 거의 못함. • 큰 형도 청각장애인임. •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 	없음
D	여/48	보청기(左) 중복장애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모두 건청인이며, 수화는 전혀 못함. • 남동생도 청각장애인임. •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 	없음
E	여/44	보청기X 중복장애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며, 수화는 전혀 못함. • 형제 중에도 청각장애인이 있음. •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 	없음
F	여/65	보청기(右) 중복장애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모두 청각장애인이며, 수화를 잘 함. •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와 필담. 	없음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17주간에 걸쳐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주 1회 60분씩, 총 10회차 진행하였으며, 본 프로그램 진행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두 번에 나눠 그룹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매 차시 프로그램 후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 참여 구성원과의 피드백, 프로그램 분석(반성 및 개발) 내용을 작성하였고, 심층 면담 전사내용과 프로그램 일지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자료수집

가. 심층면담

본 연구는 무용창작 프로그램 활동을 체험한 후 이를 통해 앞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할지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그룹 심층면담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심적 변화와 경험 등 개인적 견해를 분석하고 또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매 차시 마무리 단계로 그룹 면담을 진행하여 프

로그래밍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고 무용창작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시간경과에 따른 점진적 영향과 과정에 대해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면담은 연구자 1인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면담내용을 녹화하였고, 면담 직후 수화통역사를 통해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였다. 또한, 함께 수화통역사로 참여한 통역사에게도 이들의 변화를 관찰한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이해와 분석에 접근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 중 참여자의 의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후 관계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은 재구성하였고, 내용의 신뢰를 위해 전사된 내용은 참여자에게 개별 검토를 진행하였다.

나. 면담질문

연구자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방향을 잡고 질문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형식의 대화를 통해 피면담자가 우호적이고 편안하게 임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해야한다고 하였다(Yin 저, 신경식, 서아영 역, 2005).

연구 대상자의 무용창작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을 활용하여 이를 면담 질문의 형태로 기초 재구성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자기진단테스트, 심리테스트 등 웹사이트를 활용한 자아존중감 테스트 척도 질문을 활용하여 보충하였다. 자기표현에 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Rakos와 Schroeder(1980)의 자기표현 평정척도(Self-Assertiveness Scale)를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 맞도록 개발한 김성희, 변창진(1980)의 자기표현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이를 면담 질문의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RSES와 자기표현 평정척도는 폐쇄적 질문의 형태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참여자 개인의 경험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끌어낼 수 있는 방향의 개방적 질문 형태로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면담 과정에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Yin 저, 신경식, 서아영 역, 2005)에 피면담자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의 형태를 고수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중 그룹으로 진행되는 면담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면담은 면담자와 피면담자의 관계 그리고 면담의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 형태의 비구조적 면담을 사용하였다.

다. 참여 관찰 및 일지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에 함께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으로(강주영, 2011), 외부의 시각이 아닌 내부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현장과 현실을 인지할 수 있기에 참여관찰은 사례연구의 자료를 모으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준다(Yin 저, 신경식, 서아영 역, 2005).

관찰일지에 대하여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8)은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찰 현장에 대한 기술과 관찰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사건,

관찰된 행동과 사건에 대한 의미성, 관찰대상자들의 대화, 연구자의 의견, 지속적인 업데이트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각 회차 마다 활동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특정 사항을 기록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 결과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관찰 일지를 통해 참여자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는 매 차시 무용창작 프로그램 진행 후 참여자 피드백, 수화통역사의 참여관찰 피드백, 그룹면담 및 관찰 결과를 통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일지에 작성하여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유동적으로 수정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청각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무용창작(DCD) 프로그램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다가가고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에서 주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수화를 활용해 Dance Creation for the Deaf 즉, 농인을 위한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문화 중 하나로 수화예술 내의 범주로 분류되는 수화무용은 농인들의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이며 감정과 의사를 신체적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권수정, 2015).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정진영(2002)의 부산 배화학교 수화무용부의 ‘수화무용 지도단계와 활동내용’ 프로그램과 권수정(2015)의 ‘수화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계형성 단계, 신체활동 단계, 창작활동 단계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관계형성에서는 참여자와 참여자의 관계, 참여자와 진행자의 관계 형성을 위한 단계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고 함께 신체를 움직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준비시키는 단계이다.

신체활동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이고 표현하는 단계로 다양한 움직임 활동을 통해 신체 표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감정 표현을 움직임에 담아 신체 표현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다.

신체활동에서 ‘신체 움직임 익히기 I, II’는 김두련(1998)이 Laban의 움직임 기본요소인 시간(time), 공간(space), 힘(force), 흐름(flow)과 Labanotation을 바탕으로 개발한 창작무용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 김두련(1998)은 움직임 탐색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체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I단계는 신체적인 자각(body awareness), II단계는 움직임 자각(movement awareness), III단계는 즉흥 및 상상 표현, IV단계는 움직임의 어휘(movement vocabulary)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신체활동에서 신체 움직임 익히기 단계는 김두련(1998)의 창작무용 교육프로그램 I~IV 내용 중 청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로 세분화하였고, 움직임과 감정을 시각적 자료로 준비하여 보고 전달되는 느낌을 즉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마지막 창작활동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수화로 이야기하며, 신체표현 단계에서 활동한 신체 움직임 활동을 수화와 결합하여 이야기의 표현을 확장하고 하나의 작품 형태로 창작하여 발표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정진영(2002)의 ‘수화무용 지도단계와 활동내용’, 권수정(2015)의 ‘수화무용 프로그램’, 김두련(1998)의 ‘창작무용 교육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창작 DCD(Dance Creation for the Deaf)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표 2〉 무용창작(DCD) 프로그램

단계	주차	내용
사전 면담	1	무용창작(DCD) 프로그램 참여 전 그룹 면담 • 질문지를 통한 그룹 심층 면담 진행
관계 형성	2	라포 형성 I • 인사하기 • leader & follower
	3	라포 형성 II • push & pull • mirror(1:1, 1:다수)
신체활동	4	신체 리듬 익히기 • 시각 자료를 활용한 리듬 익히기(영상 매체 활용) • 신체를 활용한 리듬 익히기(돌러 앉아 북 활용)
	5	신체 움직임 익히기 I • 단어를 활용한 움직임 상태 표현하기 • 단어를 나열하여 연결하기
	6	신체 움직임 익히기 II • 기호를 활용한 움직임 표현하기 • 참여자들이 아는 감정에 대해 나누기 • 감정카드 제시하고 표현해보기
창작활동	7	나만의 주제 찾기 • 나만의 기억들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 기억 나누기
	8	나만의 주제 선정 • 나만의 기억들을 가지고 주제와 이야기 구성하기. • 수화로 표현하기
	9	나만의 움직임 확장하기 I • 수화에서 포인트 되는 움직임 선택하여 발전시키기. 〈개인 움직임〉, 〈단체 움직임〉
	10	나만의 움직임 확장하기II • 수화에서 포인트 되는 움직임 선택하여 발전시키기. 〈개인 움직임〉, 〈단체 움직임〉
작품발표	11	움직임 발표 및 나눔 • 움직임 발표하기. • 발표 피드백.
사후 면담	12	무용창작(DCD) 프로그램 참여 후 그룹 면담 • 질문지를 통한 그룹 심층 면담 진행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활용하여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절차로 분석되었다(유기웅 등, 2018). 먼저, 프로그램 진행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그

롭심층면담 일지, 프로그램 진행 중 촬영된 영상, 프로그램 참여 일지를 검토하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별하여 주제별로 나열하고 코딩하는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코딩된 자료를 분석하여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위 범주에 대한 ‘범주 확인’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면담 일지와 프로그램 일지를 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받아, 분석된 내용이 참여자의 실제 경험과 일치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범주의 결과가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각 범주에 대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행연구 내용과 함께 연구 과정 중 수집된 면담 내용, 관찰 일지, 피드백 등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무용창작(DCD)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나타난 변화.

가. 생각의 변화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지금 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며 눈도 열리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A).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농아의 한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확실히 배울 때 알게 되는 느낌처럼 프로그램을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면 몰랐겠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여니까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물어보게 되고 실천해보니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어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F).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또 모양으로 설명해주시고 계속 우리를 배려해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D).

참여자들은 무용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고 활동 자체도 처음이라 프로그램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어색해하고, 활동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딘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마음이 열리면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연구자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참여자들이 쉽게 활동에 임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니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방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활동, 상대방이 전달하는 다양한 표현을 읽고 해석하며 맞추는 활

동들을 통해 소통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하며, 자신이 소통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시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지 않고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상대를 따라가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개인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돕고, 믿어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 서로가 합심해서 잘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필요로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실천해서 같이 도와주고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C).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보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서로 교제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D).

나의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눈으로 보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어요. 물론, 아직도 어떻게 도와줘야할지 잘 몰라서 어렵기는 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B).

전에는 소통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사고로 누군가와 대화하면 어긋날 것이고, 소통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앞서 포기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소통해야 하는 활동,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활동을 반복하니 점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고, 조금씩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화하고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원인분석력과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공감능력, 상대와 자신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는 자아확장력이 신체활동을 통해 증가되었다(심태영, 박기용, 정연택, 최연재, 2013)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 F의 경우 참여자들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참여자로 무용 활동은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존감 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큰 만족감을 준다(김유미, 송혜순, 2017)는 연구결과와 같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계속 도전해보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치가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의 발견

내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체 활동을 통해 단어를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에서 **내가 표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이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활동이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E).

스스로는 생각 못하지만 시도할 수 있게 힘을 주고 원동력을 주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좋았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F).

새로운 활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D).

표현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참여자 D 경우 사전면담에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며, 오해하고 왜곡을 많이 했었다며 대부분 그냥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편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무용 창작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혼자 힘보다는 누군가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때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인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생각, 행동이 무용 활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자기중심성, 고집성 같은 특성이 무용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김민희, 2010)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자기관리역량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다(홍예리, 김세훈, 2016)는 내용을 본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에 대한 신뢰, 새로운 것 혹은 모르는 것을 타인과 함께 돕고 도울 때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 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반대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도와 줄 때가 더 힘이 나고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D).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따라가 주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내가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대가 원하면 내가 양보해주고 때로는 내게로 이끌 수도 있는 활동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호흡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수화통역사).

상대와 호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향과 성격을 발견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리드하여 이끄는 것이 편한가 하면 누군가는 상대방에게 맞춰 따라가고 배려해줄 때 편한 사람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성향과 성격을 지녔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은 이러한 성향을 지녔고 반대로 나와는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있겠다는 생각에 상대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배려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자신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알게 되는 시간을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본인은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부분,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리듬 수업을 할 때 처음에는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할 수 있다 생각하며 한 번 해볼까 하고 계속 도전하니 잘하게 되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D).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랐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뒤로 잘하게 되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B).

시각 자료를 활용한 리듬 수업에서도 참여자들은 당연히 잘 안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따라해 보니 자신이 박자감이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술 활동을 통한 예술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함으로써 자기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Andrew, 1994). 이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창작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으며 계속해서 도전해보고자 하는 긍정적인 도전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고, 흥미를 느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성취감으로 자신의 능력을 재확인하면서 저하된 자신감이 높아진다(심태영 등, 2013)는 연구결과와 상응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마음이 잘 움츠러들었는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웠는데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발표까지 해보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E).

참여자E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몸으로 표현도 하고, 앞에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과거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할까 말까 속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뭔가 해 보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수화통역사).

그런 것 같아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E).

참여자 C같은 경우 평소 그냥 가만히 있고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엄청 활발하고 표현도 많고 장난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단어 내에서 간단하게 전달할 뿐 자신의 마음을 항상 감추는데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 자신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수화통역사).

정진영(2002)은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의 자신감 향상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수화무용 창작활동과 공연 경험이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도 신체를 움직여 활동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며 나누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개인의 성향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모습을 형성하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표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각자 나름대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무용창작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부정적인 모습과 소극적인 모습을 무용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무용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토대로 발표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경험을 통해 자아 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김민희, 2010)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긴 세월을 살아온 상황과 환경이 있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경험도 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무용창작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그 틀을 조금씩 부수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그 동안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자신은 평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2. 무용창작(DCD)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의 자기표현능력에 나타난 변화.

가. 소통의 변화

농인의 특성상 소통에 있어서 상호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방적인 소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소통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해 관계가 어긋나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소통의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며, 특정 대상을 이해하여 표현하는 것도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롭게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통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전달할 때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고 나는 전달했기 때문에 상대가 다 알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대는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D).

참여자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니 서로 마음을 열어 상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 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점점 소통이 되고 있다고 느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C).

처음에는 소통에 대해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 가족들,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안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상대를 도와주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니 고민도 많고 힘들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 소통을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노력도 했어요. 문자를 주고받으며 관심을 갖고 표현하니 소통이 잘 되었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B).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여 움직여야하는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긋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뒤로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보다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활동에서 자기 표현력은 발현되기 쉽다(오은정, 2002)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참여자들의 소통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나. 표현 활동의 재미

리듬 수업하면서 ‘빠르게, 느리게’의 느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도형을 가지고 박자를 다양하게 시도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또한, 도형, 기호로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하나의 기호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재미있었어요. 어렵지만 다음에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B).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러한 표현 활동을 하고 연습도 하니 소통이 점점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몸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F).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표정과 몸짓으로만 전달하라고 하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전에는 해보지 않은 활동들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주 이러한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을 더 해보고 싶고, 동사와 형용사를 조합해서 신체로만 움직여보는 수업도 더 다양하게 많이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E).

리듬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북으로 난타처럼 공연 같이 해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연구 후 심층 면담, 참여자 D).

움직임 및 신체표현, 창작무용 등 비언어적 중심의 무용이 청각장애인의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언어적 어휘력과 창의력 향상을 수반하고 이는 적극적 인간으로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강미리, 박순자, 2021). 이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에도 수화, 표정, 몸짓 등을 활용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해봄으로써 새로운 신체 활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해했지만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여볼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씩 시도하다 보니 점점 표현이 되었고, 참여자 간에 서로 창의적인 표현들을 보고 배우는 부분들도 생기게 된 것이다. 평소에는 쉽게 접하거나 해볼 수 없는 활동들이다보니 재미를 더 강하게 느낀 것 같고,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니 활동에 더 관심을 갖고 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무용교육을 받음으로써 몸을 통한 소통을 가능케 하고, 그로인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부여하여 보다 긍정적인 성향을 갖도록 하는 것에 효과를 보였다(김민희, 2010)는 연구결과와 무용

교육이 청각장애인의 표현의지를 발달시킬 수 있다(문현희, 2003)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여 본 연구 또한 청각장애인의 표현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농인들은 주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여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인 삶을 산다. 스스로 알아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표현해보고, 실행해보는 경험이 거의 없는데 무용창작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어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니 표현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운정(2010)의 연구결과 중 창작무용은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감성을 인지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내적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신체표현능력을 고취한다는 내용과 근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표현의 변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과 바탕이 다채롭게 발전하듯이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단어와 감정, 표현들을 제시해주면 이들이 그것을 알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표현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표현 능력에 확실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 농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어의 이해도가 많이 낮아요. 일반 아동은 책도 읽고, 독후감을 통해 느낀 점을 쓰고 전달하는 기회가 많지만 농인은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이 없고, 훈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연구 후 심층 면담, 수화통역사).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시도해봤기 때문에 특정 단어를 기존에 알던 방식과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단어의 이해가 더 수월해졌고,** 머리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몸으로 직접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니 그 느낌이 더 잘 전달되고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단어들과 조합하여 표현하는 부분에서 **창의적으로 잘 표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농인들도 창의력이 좋은데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이에요(연구 후 심층 면담, 수화통역사).

수화통역사의 사후면담 내용처럼 농인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거나 문자를 접하기가 어려우며 글에 대한 이해도도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특정 단어를 보면 해석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 어렵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놓치게 되는 것이다.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어의 뜻을 알아야 표현이 가능하고 더 명확한 전달이 이루어지는데 단어를 모르니 표현력도 낮아지고 그러다보니 점점 표현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사전 면담 시 참여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단어의 이해도가 농인의 표현과 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아동은 말과 언어를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말하기 능력은 또래 일반인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다(박현주, 2022)는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김민희(2010)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자아와 정서는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아와 정서는 주어진 환경과 교육에 의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농인들도 무용창작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 보고, 이를 통해 몰랐던 단어도 습득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표현력이 증진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언어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지라도 인내를 갖고 내면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황규자, 1998)고 하였듯이 성인 청각장애인에게도 이러한 교육적 무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및 기관의 복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 창작 수업을 진행하며, 그들이 움직임으로 소통하는 과정과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 청각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에 있어 무용 창작(DCD)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았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무용창작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탐구한다는 학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무용 움직임을 통해 장애라는 벽을 허물고 신체 언어로 이루어진 상호작용과 소통의 방법을 구축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본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각 장애인들은 자아존중감에 있어 '생각의 변화'와 '자신의 발견'이라는 고무적인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성인 청각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무용 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자기표현 능력에 있어서는 '소통의 변화', '표현 활동의 재미' 그리고 '표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계와 극복'의 해답을 무용 움직임을 통해 찾는 과정은 반복적인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청각 장애인이 움직임과 조우하며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소통이 심리적, 정신적 소통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움직임으로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과 행위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무용 창작(DCD) 프로그램의 '나만의 움직임' 찾기를 통해 단순히 신체 움직임의 탐구가 아닌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과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습득하면서, 선순환 구조의 움직임 학습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무용 수업을 통해 형성되었고, 능동적 태도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상대의 움직임과 나의 움직임을 습득하고 실행하면서 스스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작용이 일어났으며, 이는 그들을 '나'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읽는 사회적 발달로 이르게 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성격과 외모 그리고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고스란히 무용움직임에도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각자의 움직임과 성향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과 결과물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름'을 극복하는 과정과 수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에게 나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소통의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이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성인 청각 장애인들이 단순히 무용 움직임을 습득하고 신체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무용 창작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움직임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지 능력 역시 증진되어, 보다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를 형성했다는 점도 중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나 표현해보지 않았던 단어를 신체 움직임으로 실행하면서, 자기 표현력 증대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언어 인지 능력 향상과 창의력 향상, 주체적 표현 의지 발달 그리고 긍정적 소통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성인 청각장애인 비교 집단을 설정하고, 여가지지자를 통한 자아 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의 변화를 보다 분석적인 측면에서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청각장애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객관적인 수치와 양적/질적 혼합 연구를 통해 무용 움직임의 특성과 효율성을 탐구하고, 청각 장애인들이 무용 창작 수업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연구는 연령, 성별, 경력, 연구 기간에 따라 심도 깊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청각장애인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와 그 과정을 통해 무용 수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체계적인 장애 무용 수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의 무용 수업 지지자들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무용 수업과 무용 창작 수업을 통해 소통의 방법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며, 나아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실행을 고려할 때, 무용 지지자들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청각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자아 정체성 확립, 사회성 증진, 자기 표현력 향상, 신체 인지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한 무용 수업을 그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진행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夏雨).
- 박현주(2022). **특수아동의 이해(제2판)**. 박영스토리.
- 오혜경, 심진례(2003). **청소년기 장애아동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 신정.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 Yin, R. K.(2005).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역). 한경사. (원저출판 1984).
- Paul, P. V. & Jackson, D. W. (1993). **Toward a Psychology of Deafness**. Allyn and Bacon.
- 강미리(2022). **청각장애인 무용교육의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미리, 박순자(2021). 국내 청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무용교육의 실태와 제언.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1(16), 447-464.
- 강은주(2004). **무용교육이 청각장애인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주영(2011).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무용 활동 사례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성희(2021). **청각장애인의 융합적인 신체적 감정표현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동작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1), 1-15.
- 고아라(2014). **국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 관련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나영, 장경호(2008).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신체표현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 특수체육학회지**, 16(2), 25-44.
- 김두련(1998). **아동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창작무용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무용학회지**, 3(1), 1-24.
- 김민희(2010). **무용교육이 청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문현희(2003). **청각장애아의 정서발달을 위한 무용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신선미(2010). **청각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심태영, 박기용, 정연택, 최연재(2013). **전통무예 국궁교실 참가가 지체와 청각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1(2), 57-73.
- 오은정(2002). **자기 표현력 증진을 위한 교육 연극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충현(2014). **집단미술치료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각장애인의 사회불안 감소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혜숙(2010). **청각장애 대학생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3, 243-274.
- 장옥례(2008). **미술치료가 청각장애인 생활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1), 107-130.
- 정진영(2002).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2), 99-120.
- 조윤정(2010). **창작무용교육이 청각장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한유진, 이유나, 황찬용, 조항휘, 김영미, 박혜진(2018). 장애인 무용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18(1), 25-32.
- 홍예리, 김세훈(2016).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자기관리역량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7(2), 143-164.
- 황규자(1998). 무용요법이 청각장애자의 사회지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무용학회지**, 3(1), 61-79.
- 김성희, 변창진(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3(1), 51-85.
- Halpern, A. S.(1994). Quality of Lif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 193-236.
- 권수정(2015). P학교에서의 수화무용 프로그램 개발[포스터발표]. 제8회 창파(滄波) 국제학술제.
- 김유미, 송혜순(2017). 장애노인의 무용수업 사례연구[포스터발표]. 제9회 한국무용연구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이은경, 홍양자(1994). Disciplinary Health Education : 무용교육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포스터발표]. 국제스포츠 학술대회.

논문투고일 2024. 07. 25.

심사일 2024. 08. 19.

심사완료일 2024. 08. 30.

A Qualitative Study on the Effect of a DCD, Dance Creation Program Using Sign Language, on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Ability of Adult Deaf People

Kang, Choong man* · Kim, Kyung sin**

M.A, K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a Dance Creation for the Deaf (DCD), dance creation program for the adult hearing impaired affects their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ability. Th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es an adult hearing-impaired person affect self-esteem by participating in DCD? Second, how does it affect the ability of adult hearing-impaired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by participating in DC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ance creation DCD program has helped establish the self-identity of deaf people and improve their confidence and social skills by providing new experiences, creat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discovering their original potential. Second, by experiencing creative body expression and emotional expression activities through the DCD program, it helped the hearing impaired improve their self-expression ability, enhance creativity, and communicate positively.

Key words: Hearing Impaired(청각장애인), Deaf People(농인), Dance Creation for the Deaf Program(DCD 무용 창작 프로그램), Self-Esteem(자아존중감), Self-Expression Ability(자기표현능력)